

야권 '드루킹 특검' 임정혁·허익범 추천

3당 첫 회동서 '공안통' 합의 문대통령 3일 이내 임명해야 민주 '野 합의 추천 존중'

야당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허익범 변호사 2명을 압축,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회동을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방대한 특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현실 검사시절 역량과 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증거인멸, 부실·

축소수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이뤄지도록 오늘 대승적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검은 파견검사와 공직자들을 지휘해야 하므로 지휘력, 통솔력 두 가지 측면을 중요한 덕목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허익범 변호사를 좀 선호했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임정혁 변호사로 쉽게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임정혁 변호사(연수원 16기)는 대표적인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2012년 대구 공안부장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을 진두지휘해 당내 경선 관련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62명을 사법처리했다. 제주 강정마을 사태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등 진보단체 집회·시위를 엄격하게 처리했다. 서울고검장과 대구 차장검사, 법무

연수원장을 연이어 지낸 뒤 2016년 개업했다.

허익범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에서 공안부장과 형사부장을 두루 지냈으며, 지난해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장을 맡으며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이날 야당의 3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리는 절차까지 마무리한 만큼, 문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주 특검이 임명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변협이 추천한 오광수 후보 본인이 특검을 맡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만큼 변협에서 후보 명단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

임 차원에서 이런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부터 평화당 장 원내대표가 평화와 정의의 원내대표를 맡아 정의당은 이번 야3교섭단체 협상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정쟁을 멈추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의 합의 추천을 존중한다"며 "이제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국회와 정당이 관여할 공적 절차는 다 마쳤으므로,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 추천 특검 후보들이 합당 미달이라는 분석과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추가로 드러날 의혹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미묘하게 교차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에 지지를" 6.13지방선거 선거운동이 한창인 4일 서구 양동시장에서 정의당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은 당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경찰, 이용섭후보 당원명부 유출 철저 수사" "광주 22개 투표소 장애인 이용 불편"

광주 온 심상정 "사실이라면 시장 후보 자격 박탈해야" | 市,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7곳 현장 개선·15곳 보완 요청

심상정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4일 광주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사실이면 민주당 이용섭 후보는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나경재 광주시장 후보 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자격 박탈 뿐만 아니라 시장 자격을 내놔야 할 만큼 중대 범죄이다"고 비판했다. 또 "유출 의혹은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수사기관은 제대로 수사해서 선거 전에 유권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용섭 후보는 TV토론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이용섭 후보는 광주시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후보라면 이곳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의 시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후보의 '광주 경제 자유구역' 공약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심 위원장은 "광주 경제 자유구역" 정책은 외국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정책이며, 이미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실패로 검증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가 6·13 지방선거를 진행한 '민관 합동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 결과, 22개 투표소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휠체어가 지나가기 힘든 출입구 경사로나 좁은 출입문,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단체, 시민인권실천단 등과 함께 지난 4월13일부터 19일까지 총 364개 투표소 중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 4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투표소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한 22개 투표소 중 7곳은 현장에서 개선조치하고 15곳은 임시경사로 설치, 안내요원 배치 등 투표일 이전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전투표소 서구 양3동주민센터는 선관위 측이 당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장애인들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문이 좁은 남구 주월2동 봉주경로당은 당일 임시로 문을 제거해 전통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6곳은 인근 건물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마쳤다.

/오광록 기자 kroh@

6·13 선거현장

광주시장·시장·군수 후보

전덕영 "전통시장 명품시장으로 육성"

전덕영 바른미래당 광주시장 후보는 4일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 남광주시장을 찾아 "전통시장을 명품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통시장 방문에는 박주선 중앙선대위원장과 권은희 광주선대위원장, 김관영 전북선대위원장이 함께 하며 "광주의 일당독점과 부정부패를 막고 제대로 된 광주발전을 위해 꼭 전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전 후보는 전통시장의 명품시장화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육성을 총괄하는 시장 직속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석 "여순사건 진상 규명·특별법 필요"

허석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은 4일 "올해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진상 규명법과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후보는 "1948년 10월 19일 발발한 여순사건으로 광복 직후 여수와 순천, 전남동부지역의 인제들이 좌익과 우익 여부를 떠나 초토화됐다"면서 "제주 4·3항쟁과 연계된 여순사건의 피해자는 전남동부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지역인 전남동부지역의 지자체는 물론 시민단체, 중앙정부를 망라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70주년이 되는 10월 19일 이전에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안민석, 박병동 후보 지원유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안민석 의원이 4일 장흥을 방문 박병동(사진) 장흥군수 후보 지원유세를 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장흥공용터미널과 장흥읍사무소 앞에서 "낙후된 장흥지역을 힘있는 집권당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군수로 당선시켜야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지방교부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록 도지사 후보도 "장흥군민의 숙원사업인 장흥-광주간 4차선 도로와 목포-보성간 철도개설을 앞당기는데 장흥군민에게 약속드린다"며 "저와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는 박병동 후보를 군수로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공영민 "농업인수당제 도입"

공영민 더불어민주당 고흥군수 후보는 4일 농업인수당제 도입 및 농촌 인력 부족 대책안을 내놔다.

공 후보는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행복바우처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만30세 이상 65세 미만 전업 여성 농업인에게 바우처카드(체크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신청자가 2만 원만 부담하면 연간 10만 원까지 식당, 도서,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화장품점, 놀이공원, 펜션·민박, 화원, 스포츠센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큰 인기를 끌며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20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장흥=김용기 기자 jwpark@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평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원금, 이자 빠고 6~8% 가능

장기 임대주실 분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